

공공기관 투쟁소식



공공기관사업본부

투쟁소식지

2019.09.04

공공기관노조 파업전략 합동워크숍

8월 29일 ~30일, 경북 문경
12개 사업장 87명 간부들 트모어 교섭투쟁전략 논의

공공기관 임피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확대 효과없고
인건비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



사업장을 넘어 정부를 사용자로 총단결 총투쟁

지난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문경라마다호텔에서 파업전략 합동워크숍이 열렸다.

12개 조직 87명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인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2016년 성과연봉제 대응 투쟁을 넘어 올 해는 공공기관의 민주적운영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본부는 9월 23일부터 대정부 요구쟁취를 위한 기재부 앞 농성,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만

명 규모의 대정부 요구쟁취 결의대회, 교섭 결렬시 10월 말 경고파업까지 예정하고 있다.

각 단위노조는 대정부 요구안을 조합원들에게 교육 홍보하고 9월 28일 집회에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쟁의권이 확보된 조직은 10월 경고파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정부 요구안과 투쟁계획은 조합원들이 알기쉽게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로 현장에 전달될 계획이다.



▲ 8.29~30 공공기관노조 파업전략 합동워크숍 참여중인 현장 대표자와 간부들

청년채용 확대 😞 현장갈등 😡 실패한 임금피크제 해결방안 모색해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동주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동주최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임금피크제 도입 4년을 맞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 채용의 효과는 미미하고 현장에서는 세대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에서라도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정부가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본토론에서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제시로 인한 문제점, 현장의 갖가지 문제 호소에도 아랑곳 않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